

사회

수능 성적 발표 못하는 광주교육청

1등급 비율만 발표, 2등급은 공개 안해... "실력광주 무너졌다" 논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자체 집계한 2012학년도 수능능력시험 성적을 예년과 달리 일부만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1학년도에는 1, 2등급 비율과 함께 4등급까지 누계를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비율이 다소 오른 1등급 수치만 발표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고3 재학생의 올 수능 성적 결과 1등급 비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연어 4.3%(-1.4%P), 수리가 4.9%(+0.3%P), 수리나 4.8%(+0.2%P), 외국어 6.5%(+2.0%P)로 4개 과목 평균 0.28%P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1등급 기준에서만 볼 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중상위권 대학 진학을 가능케 할 수 있는 2등급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시 교육청은 그동안 1, 2등급 비율을 함께 발표해왔다.

한해보다 크게 떨어졌거나 기대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성적표를 확보해 이를 근거로 산출한 공식자료가 아니므로 나머지 등급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결과는 3월말께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 수치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수험생들의 성적을 종합·분석하는 광주진학부장 협의회측도 "공인 확인된 통계수치가 없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올해 수능이 지난해보다 쉬웠던 점을 감안하면 교육청이 자체 집계한 수능 4과목 1등급 평균이 지난해보다 0.28%P 상승이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력 광주' 명성을

■광주지역 수능 1등급 연도별 비율 (단위:%)

연도별	언어	수리	수리나	외국어	평균
2011	5.7	4.6	4.6	4.5	4.85
2012	4.3	4.9	4.8	6.5	5.13
증감	-1.4	+0.3	+0.2	+2.0	+0.28

(자료: 광주시 교육청)

로 보자면 더 큰 폭으로 올라야 한다는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의예과 535점 지원 가능

전남대 의예과와 조선대 기초의과 학부에 지원하려면 각각 535점, 486점 이상 받아야할 것으로 점쳐졌다.

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6일 한 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한 개인 수능성적을 토대로 광주진학지도교 사협의회와 연계, 작성한 '2012학년도

정시 대입 배치 참고 자료'에 따른 것이다. 기준점수는 전남대의 경우 800점 만점(표준점수 언·수·외 600점+탐구 200점), 조선대는 영역별 100 분위 기준이다.

인문계 정시 나군에서는 전남대 영어교육과와 국어교육과는 각각 511

점, 507점이 넘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경영학부는 495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자연계의 경우 의예과는 535점 이상, 수학교육과는 502점, 간호학과는 494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조선대는 정시 나군을 기준으로 간호학과와 기초의과학부는 488점, 486점, 영어교육과와 국어교육과는 각각 496점과 493점, 글로벌 법학과는 490점이 넘어야 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

깡깡대는 손수레 끈 알고보니 고철 절도범

순찰중이던 경찰관들이 힘들게 손수레를 끌고 가던 40대 주민을 도우려다 맨홀 뚜껑 절도범을 붙잡았다. 주인공은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임채홍·김정수·김선기 형사.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2시에 광

검다고 판단한 김정수 형사가 김씨에게 "포장 안에 뭐가 들었느냐?"고 물으면서 사태는 돌변했다. 김씨는 선뜻 답을 못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김 형사 등은 김씨를 추궁했다.

포장을 열어보고 맨홀 뚜껑 6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한 형사들은 당황해 하는 김씨에게 캐묻는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

경찰, 힘겨워 해 밀어주다

맨홀뚜껑 훔친 40대 검거

주시 남구 양림동 광주천변 도로에서 김모(45)씨가 차도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차를 멈췄다. 혼자서 힘겨워하는 김씨를 돕기 위해서였다.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 현장을 지나던 중이었던 김정수 형사는 차에서 내려 김씨의 손수레를 밀어 주었고 2명은 차에 탄 채 뒤따랐다.

그러나 손수레 안 포장에 싸인 물건이 부피에 비해 지나치게 무

다. 김씨는 지난 3일 동구 일대에서 맨홀 뚜껑 9개를 훔쳐 3개를 팔고 나머지를 처분하려고 다른 고철상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광주동부경찰청은 6일 김씨를 절도 혐의로, 훔친 물건인지 알면서 맨홀 뚜껑 3개를 사들인 노모(50)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454) 김종두



"취업 시켜 주겠다"

브로커·공무원 등 입건

광주동부경찰청은 6일 브로커를 통해 취업 희망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H씨, 취업사기 브로커 J씨, 모 자치구 공무원 M씨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혐의로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J씨는 취업 희망자 A씨에게 3000여만원을 받았으며, J씨는 이를 다시 광주지검 한 자치단체장 친척인 H씨에게 700만원, 모 자치구 6급 공무원인 M씨에게 1600만원을 각각 건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J씨는 A씨를 한 자치구 무기계약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약속한 뒤 돈을 받았으나 이후 A씨가 취업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J씨는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압박에 자수했으며 H씨와 M씨는 받았던 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찜질방 벽타고 올라가 여자 알몸 촬영

○목욕탕에서 샤워중인 20대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후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한 30대 회원이 경찰서행.

○6일 광주서부경찰에 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모(32)씨는 이날 새벽 2시에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찜질방 여탕에서 샤워중이던 A(여·24)씨의 알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퇴근하던 중 호기심에 찜질방 외벽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비상계단에서 여탕을 '감상'한 뒤 휴대전화로 뽐냈

것.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고3 위한 '미래직업 콘서트' 6일 오전 광주시 동구 KT정보통신센터 대강당에서 광주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최로 열린 고3 청소년을 위한 '미래직업 콘서트'를 찾은 수험생들이 진로·직업과 관련된 강연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고교 공사립 학력 격차 심화

고교 2 성취도, 사립고 상위 휩쓸어

광주지역 공·사립 고교 간 학력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 2학년 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2011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다. 자료는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개됐다.

평가 결과 해당 학년에서 요구되는 국·영·수 과목의 교육수준과 목표를 50% 이상 달성한 학생을 지지하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에서 사립고는 사립고가 차지했다.

자율형 공·사립고를 포함한 광주 45개(특목고 광주과학고 제외) 고교 가운데 국·영·수 3개 영역 10위권에

든 학교는 자율형 공립고인 상일여고 가 유일했다.

3개 과목 보통학력이상 비율을 합한 전체 1위는 자율형 사립고인 송원고가 차지했다.

2위는 상일여고, 3위 대광여고, 4위 광덕고, 5위 대성여고, 6위 석산고, 7위 송덕고, 8위 서강고, 9위 대동고, 10위 동신고 순이다.

또 전체 학교의 보통이상 학력 평균 비율은 국어 91.8%, 수학 89.5%, 영어 90.7%로 집계됐다.

공립인 문정, 첨단고 등 3~4곳을 제외하곤 대부분 평균 이하였으며, 상·하위권 학교간 격차는 평균 20%p

■광주 일반계고 학업성취도 순위

(※ 비율은 국·영·수 3과목 보통이상 학력 학생들의 평균)

순위	학교	비율(%)	순위	학교	비율(%)
1	송원고	99.3	16	문성고	95.5
2	상일여고	98.3	17	שליל여고	95.4
3	대광여고	98.2	18	국제고	95.0
4	광덕고	97.2	19	중앙여고	94.8
5	대성여고	97.1	20	동성고	94.7
6	석산고	96.8	21	של례시오고	94.7
7	송덕고	96.8	22	송원고	94.5
8	서강고	96.7	23	인성고	93.4
9	대동고	96.5	24	조대여고	92.2
10	동신고	96.5	25	경신여고	91.7
11	서석고	96.3	26	금호고	91.1
12	동신여고	96.0	27	동아여고	91.0
13	수피아여고	95.7	28	של례시오고	91.0
14	문정여고	95.6	29	원당고	90.7
15	고려고	95.5	30	진흥고	90.0

(자료: 학교알리미)

를 웃돌았다.

과목별로는 특목고인 광주과학고 를 제외하면 송원고가 국어(99.6%), 수학(99.6%), 영어(98.8%) 등 전 과목 평균 99.3%로 1위를 차지했다.

국어는 상일여고, 대광여고, 송원여고, 송덕고 순이며 수학은 송원고, 상일여고, 대광여고, 영어는 송원고, 대성여고, 광덕고 순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아일랜드리시아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자우나 24시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프링머신)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일랜드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